

Session 11 Trusting God's Leadership When Mistreated (1 Sam. 24) 제 11 장 억울할 때에 하나님의 리더십을 신뢰함 (삼상 24 장)

I. A FOUNDATIONAL PRINCIPLE

기초 원리

- A. One important aspect of our spiritual life is how we respond when mistreated or falsely accused. We will be all mistreated many times. If we respond in the right way, we will grow deeper in God. If we respond wrongly, a residue of bitterness builds up in us, causing us to live with a dull spirit.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거짓 정죄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우리는 모두 억울한 상황을 여러 번 겪고 살게 된다. 우리가 이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성장해나갈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남은 쓴 마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는 영이 무더진 상태로 살게 된다.

- B. **Foundational principle:** Believers no longer have the primary ownership of their lives because Jesus bought and owns them (1 Cor. 6:19-20). Therefore, for any who seek to obey His leadership, *He takes responsibility* to intervene to help us fulfill His will in our life and to answer when we are mistreated in ways that affect our reputation, body, money, possessions, position, impact, etc.

기초 원리: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이상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고전 6:19-20). 따라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그분의 뜻을 성취하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 우리의 명성이나 신체, 재정이나 소유, 지위나 영향력 등에 영향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

¹⁹*You are not your own...* ²⁰*For you were bought at a price; therefore glorify God in your body and in your spirit, which are God's.* (1 Cor. 6:19-20)

¹⁹ ...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²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한글 KJV: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9-20)

- C. In Psalm 31, we see how David interacted with the Lord when he was being greatly mistreated. By trusting God to intervene and refusing to retaliate, he brought God into the conflict. This was partly how David engaged in spiritual warfare in personal conflicts and released God's blessing.

시 31 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주 크게 억울한 상황을 겪을 때에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나갔는지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주시기를 믿고 이에 대해 보복하기를 거절하며,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했다. 이는 다윗이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나갔는지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했는지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⁵*Into Your hand I commit my spirit...* ¹⁵*My times are in Your hand.* (Ps. 31:5, 15)

⁵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 ¹⁵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 (시 31:5, 15)

- D. When David “committed his spirit” into God’s hands, he was committing to God everything that deeply touched his spirit—his reputation, money, possessions, position, and impact, etc. He was **entrusting the outcom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his life to God’s leadership. To commit “our times” to God includes **trusting His timing** to answer us as He helps us fulfill God’s will in our life.

다윗이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 드렸을” 때, 그는 자신의 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 그의 명성과 재정, 소유와 지위, 영향력 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의 **결과를 하나님의 리더십에 맡겨드리고** 있었다.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성취하도록 도우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도** 의미한다.

- E. The issue was to whom did David look as his “primary source” to gain the promotion, blessing, and resources related to fulfilling God’s will in his life. The Lord alone had the power to establish this for him. He did not need Saul’s favor to fulfill God’s will for his life. Our temptation is to look to people or favorable circumstances as our “primary source” instead seeing them in a secondary way.

여기서의 문제는 다윗이 명성과 축복,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과 연관된 자원, 자원들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원천”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이다. 오직 주님만이 다윗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세워나가실 수 있다. 그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사울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축복된 환경을 우리의 이차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고 “주요 원천”으로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 F. *No one could stop David from fulfilling the will of God for his life*—not Saul, nor the Philistines. nor Satan. The only man who could stop David was David by resisting God’s leadership in his life.

어느 누구도 다윗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사울이나 블레셋 사람들도, 사단 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으며, 이 일은 그가 사람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일어나게 된다.

- G. In the next three chapters (1 Sam. 24-26) David was tested regarding whom he *looked to as his source* and how he would *respond to his adversaries* (who resisted him and blocked his goals).

다음에 나오는 세 장에서 (삼상 24-26 장), 다윗은 자신의 원천을 누구로 보느냐에 대해, 그리고 그가 자신의 적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막은 사람) 시험을 받게 된다.

- H. David was given two chances to kill Saul—in *En Gedi* (24:5) and in the *Wilderness of Ziph* (26:8). On both occasions, David chose to trust the Lord’s leadership to deliver him as he refused to take matters into his own hands. The Lord was testing David, while also giving Saul a chance to repent. Such testings are “divine appointments” impacting our future—we must be alert to recognize them.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다. 한 번은 **엔게디**에서였고 (24:5), 또 한 번은 **십 광야**에서였다 (26:8). 두 경우에 모두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결하기를 거절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그분의 리더십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주님은 다윗을 시험하고 계셨으며, 또한 사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다.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하늘이 계획한 일들”이다. 우리는 깨어서 이에 대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I. The Lord allows sudden reversals of our circumstances to test us in different ways. For example, in 1 Samuel 23, *Saul surrounded David*, and then in 1 Samuel 24, *David surrounded Saul*. In each of the circumstances, the Lord was testing both Saul and David by putting them in different positions—the one in a “position of power” was reversed, revealing different things about each.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의 상황에 갑작스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3 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포위했고**, 사무엘상 24 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포위했다**. 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 모두를 서로 다른 상황에 두심으로 시험하셨다. “힘을 가진 자”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심으로 각자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신다.

II. SAUL ENTERED THE CAVE IN EN-GEDI (1 SAM. 24:1-3)

엔게디의 굴로 들어간 사울 (삼상 24:1-3)

- A. When David was hiding in the wilderness of Moan (23:25) the Lord used a military invasion by the Philistines to divert Saul from capturing him (23:27-28). After that David fled to En Gedi (23:29).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숨어있을 때 (23:25),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주위를 돌리기 위해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사용하셨다 (23:27-28). 이후에 다윗은 엔게디로 도망갔다 (23:29).

²⁷... ***the Philistines have invaded the land!***²⁸***Therefore Saul returned from pursuing David, and went against the Philistines...***²⁹***David went up from there and dwelt in strongholds at En Gedi. (1 Sam. 23:27-29)***

²⁷ ...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²⁸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²⁹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삼상 23:27-29)

- B. After Saul finished fighting the Philistines, he returned to Gibeah where he employed 3,000 soldiers to pursue David (24:2). Saul was informed that David was in En Gedi, thirty miles from Gibeah.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친 후, 그는 다윗을 잡기 위해 3,000 명의 병사들을 고용한 기브아로 돌아왔다 (24:2). 사울은 다윗이 기브아에서 30 마일(50km) 떨어진 엔게디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¹***Now it happened, when Saul had returned from following the Philistines, that it was told him, saying, “Take note! David is in the Wilderness of En Gedi.”***²***Then Saul took three thousand chosen men from all Israel, and went to seek David and his men on the Rocks of the Wild Goats.***³***So he came to the sheepfolds by the road, where there was a cave; and Saul went in to attend to his needs. (David and his men were staying in the recesses of the cave.) (1 Sam. 24:1-3)***

¹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라 하니²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³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삼상 24:1-3)

- C. ***Returned from the Philistines***: Saul pursued David again as soon as he returned from the conflict with the Philistines. The implication of “returning” with his army intact is that he had a victorious campaign. God gave Saul victory over the Philistines for the sake of the people of Israel with the added benefit of demonstrating God’s goodness in order to give Saul opportunity to repent.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다윗을 쫓았다. 사울이 자신의 군대와 함께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이에 더해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며 사울이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

- D. **Leadership lesson:** Outward “success” does not always prove that God is pleased with a person. Often people are not moved to repentance even after receiving tokens of God’s goodness to them.

리더십 강의: 외적으로 보이는 “승리”가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증거를 받더라도 회개할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4Or do you despise the riches of His goodness, forbearance, and longsuffering, not knowing that the goodness of God leads you to repentance? (Rom. 2:4)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롬 2:4)

- E. **It was told him:** It is probable that the Ziphites told Saul of David’s location (23:14, 15, 19; 26:1).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마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말해줬을 것이다 (23:14, 15, 19; 26:1).

- F. **En Gedi:** The name *En Gedi* means “the spring of the goat.” About 15 miles northeast of the Wilderness of Maon (23:24) on the western seashore of the Dead Sea (in the territory of Judah), it is a rocky, mountainous area with many deep ravines, caves, and an oasis of fresh water springs. Because of its springs, it is fertile. As such, it was a good place for David and his men to take refuge in its many caves, some of which were very large. However, the caves were potential traps.

엔게디: 엔게디는 “염소의 샘, 우물”을 뜻하며, 이곳은 마온 황무지 북동쪽으로 15 마일 (24km) 정도에 떨어져서, 사해 동쪽 해변에 위치해 있었다 (유다 지파 영토). 이곳은 바위와 산이 많고, 깊은 협곡과 동굴, 신성한 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가 많은 곳이었다. 이곳은 샘이 있었기에 비옥한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동굴에 숨기에 좋은, 때론 아주 큰 동굴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이 동굴들은 한편으로 갇힐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 G. **Attend to his needs:** Saul went into the cave to “relieve himself” (see NRSV; NIV) and then probably take a nap in the shade to escape the heat of the sun. Saul was vulnerable in this private moment as he took off his garments and laid his weapons aside, defenseless and vulnerable.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사울은 “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으며, 그 이후 아마도 뜨거운 태양을 피해 그늘에서 낮잠을 잤을 것이다. 사울이 자신의 겹옷을 벗고 무기를 옆에 내려놓고 혼자 있는 시간은 그에게 무방비의, 취약한 시간이었다.

- H. **Leadership lesson:** The Lord allows circumstances that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Most of the men around David thought it was God’s will for him to take vengeance on Saul. The knowledge of God’s Word with a heart to obey are essential in interpreting events in our life in the right way.

리더십 강의: 주님은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을 주기도 하신다. 다윗을 따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²“*But on this one will I look: on him who is poor and of a contrite spirit, and who trembles at My word.” (Isa. 66:2)*

²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사 66:2)

III. DAVID CUT OFF THE CORNER OF SAUL'S ROBE (1 SAM 24:4-7)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다 (삼상 24:4-7)

- A. David and his men, looking *outward* toward the entrance, could see Saul as he entered the cave. However, as Saul entered the darkness from the bright sunshine, he could not see anything after coming in from the glare of sun. So he was unaware of David and his men.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동굴 입구 바깥 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사울이 동굴에 들어올 때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밝은 해가 비치는 곳으로부터 어둠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⁴*Then the men of David said to him, “This is the day of which the LORD said to you, ‘Behold, I will deliver your enemy into your hand, that you may do to him as it seems good to you.’” David arose and secretly cut off a corner of Saul’s robe. ⁵Now it happened afterward that David’s heart troubled him because he had cut Saul’s robe. ⁶And he said to his men, “The LORD forbid that I should do this thing to my master, the LORD’s anointed, to stretch out my hand against him, seeing he is the anointed of the LORD.” ⁷So David restrained his servants with these words, and did not allow them to rise against Saul. Saul got up...and went on his way. (1 Sam. 24:4-7)*

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⁵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찢려 ⁶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⁷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삼상 24:4-7)

- B. *This is the day*: These circumstances were so unusual that David’s men concluded the Lord had sovereignly arranged it. Saul was the only obstacle that stood between David and the throne.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고 결론지었다. 사울은 다윗이 왕좌를 차지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해물이었다.

1. David crept up to Saul and cut off a piece of his garment. Imagine the tension as they watched David move quietly to Saul’s side and pull out a knife, expecting David to thrust it into Saul’s body. How shocked they must have been to see him cut only the corner of Saul’s robe!

다윗은 사울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겹옷 조각을 잘랐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칼을 빼 들고, 사울을 찌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의 긴장감을 상상해보라. 그들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2. Thi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oments in David's life and future! Would he listen to his men pleading with him to remove Saul and take his place of honor and power on the throne, and thus be finished with poverty and wandering through the wilderness as a criminal?

이는 다윗의 삶과, 그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 중의 하나였다! 그는 그의 사람들이 사울을 없애고 보좌에서 명예와 권세를 취하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범죄자로 가난과 방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마치라고 탄원하는 말을 들을 것인가?

- C. **Saul's robe:** David cut off a corner of Saul's robe; it was significant because a king's robe was a symbol of his authority. When Jonathan gave David his royal robe, he was acknowledging the fact that David was the future heir of the throne (18:4). By cutting the robe, David symbolically touched Saul's kingship, disrespecting his calling as God's anointed king. Moreover, the Law of Moses required tassels in the four corners of men's garments (Num. 15:38-39; Deut. 22:12). Cutting the corner of the robe removed some of the tassels and caused the robe to violate the Law.

사울의 옷자락: 다윗은 사울의 옷 자락 끝만을 베었다. 이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왕의 겹옷은 그의 권세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왕족의 옷을 준 것은, 다윗이 미래에 왕좌를 이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18:4). 다윗이 옷자락을 베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가 사울의 왕위를 건드린 것이 되며, 사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더구나 모세의 율법은 남자의 겹옷 네 끝에 술을 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 15:38-39; 신 22:12). 겹옷 끝자락을 잘랐다는 것은 이 술을 제거했음을 의미하며, 의복이 율법에 어긋나도록 한 것이었다.

- D. **David's heart troubled him:** He repented of cutting Saul's robe and disrespecting his office as king. David's tender conscience was the strength of his relationship with God and of his kingship.

다윗의 마음이 찢려: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과, 그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 다윗의 부드러운 마음과 양심은 그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에 있어, 그리고 그가 왕이 됨에 있어서의 힘과 강점이었다.

- E. **The Lord's anointed:** David respected Saul as *the Lord's anointed*, because he looked at things from God's point of view. He was not viewing Saul as his personal enemy, but as one whom God had anointed as the king of Israel. The Lord commanded the Israelites not to curse their rulers (Ex. 22:28). God judged men severely for violating this because it was a sin against God's authority and thus against His purpose and people (Num. 12:2-15; 16:1-35).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서 존중했는데, 이는 그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울을 자신의 개인적인 적으로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있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출 22:28).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긴 자를 엄하게 심판하셨는데,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백성에 대해 죄를 짓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 12:2-15; 16:1-35).

- F. David did not see Saul; he saw the Lord's authority on Saul. David was not afraid of Saul; rather, he trembled before God's authority.

다윗은 사울을 보기보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떨었다.

- G. **David restrained his men:** David restrained his men from sinning against God's anointed (24:7). David controlled himself and his men, using all of his influence to stop them from harming Saul.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금했다 (24:7).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을 자제시켰으며, 그들이 사울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사용했다.

IV. DAVID'S APPEAL TO SAUL (1 SAM. 24:8-15)

다윗이 사울에게 간청하다 (삼상 24:8-15)

- A. The main themes in this section are David's loyalty to Saul, his confidence in the Lord's leadership, and Saul's confession of his own sin and the conviction that David would prevail and be king.

이 부분의 주요 주제는 사울에 대한 다윗의 충성심과, 그의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윗이 결국에는 왕이 될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다.

⁸David arose afterward, went out of the cave, and called out to Saul, saying, "My lord the king!" And when Saul looked behind him, David stooped with his face to the earth, and bowed down. ⁹David said to Saul: "Why do you listen to the words of men who say, 'David seeks your harm'? ¹⁰Look, this day your eyes have seen that the LORD delivered you today into my hand in the cave, and someone urged me to kill you. But my eye spared you, and I said, 'I will not stretch out my hand against my lord, for he is the LORD's anointed.' ¹¹Moreover, my father, see! Yes, see the corner of your robe in my hand...see that there is neither evil nor rebellion in my hand...yet you hunt my life to take it. ¹²Let the LORD judge between you and me, and let the LORD avenge me on you. But my hand shall not be against you. ¹³As the proverb of the ancients says, 'Wickedness proceeds from the wicked.' But my hand shall not be against you. ¹⁴After whom has the king of Israel come out? Whom do you pursue? A dead dog? A flea? ¹⁵Therefore let the LORD be judge, and judge between you and me, and see and plead my case, and deliver me out of your hand."

(1 Sam 24:8-15)

⁸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대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⁹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¹⁰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¹¹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걸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¹²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¹³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¹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다 ¹⁵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삼상 24:8-15)

- B. David's appeal for reconciliation is one of the best examples of an appeal in Scripture (it is similar to Abigail's appeal in 1 Samuel 25). He affirmed his love and loyalty for Saul, did not emphasize Saul's responsibility in their conflict, and appealed to his heart. He presented the problem without accusing Saul, focusing on those who provoked Saul by giving false reports about David (22:10).

여기서 다윗이 화해를 청한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간청함의 최고의 예이다 (이것은 삼상 25 장의 아비가일의 간청과 유사하다). 그는 사울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줬으며,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사울의 책임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 대고 호소했다. 다윗은 사울의 죄를 들춰내지 않고 문제에 대해 말하며,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서 격동시킨 이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22:10).

- C. **Leadership lesson:** By imitating David's approach we can minimize much strife among leaders!

리더십 강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함으로, 우리는 리더십 사이의 많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 D. **Called out to Saul:** Rather than cursing Saul, David honored him by calling him "my lord" and "the king," speaking as one of Saul's loyal subjects (24:8). Saul must have been shocked to see David!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다윗은 사울을 저주하기보다, 그를 "내 주" 그리고 "왕"이라고 부름으로 사울의 왕궁의 신하 중에 한 명으로서 그를 높였다 (24:8). 사울은 다윗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 E. **Your eyes have seen:** The piece of Saul's robe in David's hand was proof of his integrity (24:10).

여호와께서.. 하셨음을 아셨을 것이니이다: 사울의 옷자락이 다윗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의 말이 진실됨을 증명하고 있었다 (24:10).

- F. **The Lord delivered you into my hand:** The Lord gave Saul into David's hand, but He did not give David into Saul's hand (23:14). David convinced Saul that he had no evil motives towards him.

여호와께서 ...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하나님은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지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는 않으셨다 (23:14).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은 아무런 악한 의도가 없음을 확신시켰다.

- G. **I will not stretch out my hand against the LORD's anointed:** David's honor and loyalty for Saul was based on his respect for God's authority. David was resolute that, no matter the circumstances, he would not take matters into his own hands to harm Saul and avenge himself. Had David killed Saul, he would have been taking things out of God's hands and into his own.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보인 충성과 존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권세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하고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였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이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자신에게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 H. **Let the LORD judge:** For the Lord to "judge" or "decide" between people is to allow Him to orchestrate the circumstances to establish His will in the midst of a conflict. The Lord is a just arbitrator. He will judge or decide the right answer for each of them (24:13). [Gen 13:9; 16:5; 31:53; Num. 12:1-13; 16:4-5; 1 Sam. 24:12, 15; 26:9-11, 23-24; 2 Sam. 2:1; 15:25; 16:11-12; 1 Chr. 12:17; 19:13; Ps. 28:1; 31:5, 15; 35:1; 54:4; Jer. 11:20; Dan. 6:22; Rom. 4:20-21; 2 Pet. 2:23]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도록" 하는 것은 그분이 환경을 움직이셔서 이 갈등 가운데 그분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은 공정한 중재자이시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위한 올바른 답을 심판하고 결정하실 것이다 (24:13) [창 13:9; 16:5; 31:53; 민 12:1-13; 16:4-5; 삼상 24:12, 15; 26:9-11, 23-24; 삼하 2:1; 15:25; 16:11-12; 대상 12:17; 19:13; 시 28:1; 31:5, 15; 35:1; 54:4; 렘 11:20; 단 6:22; 롬 4:20-21; 벧후 2:23]

¹²Let the LORD judge between you and me, and let the LORD avenge me on you...¹⁵Let the LORD be judge, and judge between you and me, and see and plead my case...” (1 Sam. 24:12, 15)

¹²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¹⁵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 (삼상 24:12-15)

- I. The only weapon David used here was prayer. God has all authority and alone is able to judge between His people (24:12, 15). David's action was based in his conviction that God was watching.

다윗이 여기서 사용한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홀로 자신의 백성들 사이를 판단하실 분이시다 (24:12, 15).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⁵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shall bring it to pass...⁷Rest in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do not fret...because of the man who brings wicked schemes to pass. (Ps. 37:5-7)

⁵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⁷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험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 37:5-7)

- J. *Wickedness proceeds from the wicked*: The point of this proverb is that “actions express attitudes.” David was saying that since he did not do evil, then Saul should conclude logically that David was not an evildoer. David implied that if he were an evildoer, Saul would have been dead long ago.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이 속담의 핵심은 “행동은 마음을 드러낸다”이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무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기에, 사울은 다윗이 악인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윗이 뜻하는 바는, 자신이 만일 악인이라면 사울은 오래 전에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 K. *A dead dog and a flea*: A dead dog and a flea express self-abasement and insignificance (24:15).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다: 죽은 개와 벼룩은 자신이 낮고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다 (24:15).

- L. *Summary*: First, David honored Saul as his lord and king (24:8). Second, he claimed lies had been told about his disloyalty (24:9). Third, he appealed to his actions to prove his innocence (24:10). Fourth, he committed not to retaliate (24:10, 12, 13). Fifth, he asked God to settle the issue (24:15).

요약: 첫째,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주요 왕으로 높였다 (24:8). 둘째, 그는 자신의 충성심에 대해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24:9). 셋째, 그는 자신의 결백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24:10). 넷째, 그는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4:10, 12, 13). 다섯째,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주시기를 구했다 (24:15).

V. SAUL RESPONDED TO DAVID (1 SAM. 24:16-22)

사울이 다윗에게 응답하다 (삼상 24:16-22)

- A. Saul responded to David with great emotion (24:16-22). David loved Saul as a father, obeyed him as king, and honored him as the Lord's anointed. Saul was touched by his kindness.

사울은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며 응답했다 (24:16-22).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와 같이 사랑했으며, 왕인 그에게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자로 존귀히 여겼다. 사울은 다윗의 선대함에 감동을 받았다.

¹⁶...Saul said, “Is this your voice, my son David?” And Saul lifted up his voice and wept. ¹⁷Then he said to David: “You are more righteous than I; for you have rewarded me with good, whereas I have rewarded you with evil. ¹⁸And you have shown this day how you have dealt well with me; for when the LORD delivered me into your hand, you did not kill me. ¹⁹For if a man finds his enemy, will he let him get away safely? Therefore may the LORD reward you with good for what you have done to me this day. ²⁰Now I know indeed that you shall surely be king... ²¹swear now to me by the LORD that you will not cut off my descendants after me....” ²²So David swore to Saul. Saul went home, but David and his men went up to the stronghold. (1 Sam. 24:16-22)

¹⁶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¹⁷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¹⁸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¹⁹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²⁰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전고히 설 것을 아노니 ²¹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²²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삼상 24:16-22)

B. *Is that your voice*: Saul was far enough away that he could not see David’s face (24:16).

이것이 네 목소리냐: 사울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멀리 있었다 (24:16)

C. *You are more righteous*: Saul acknowledged David’s integrity and that he returned good for evil. Saul admitted that David’s goodness went beyond natural goodness—only one who fears the Lord acts like David in such a situation. However, Saul responded from self-pity, not repentance (24:16).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다윗의 진실함과 그가 악에 대해 선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4:16). 사울은 다윗의 선대함이 일반적인 선대함, 선함을 넘어서는 것임을 인정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다윗과 같이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기보다, 자기 연민으로 다윗에게 반응했다 (24:16).

D. *You have dealt well with me*: Saul was touched by David’s mercy. Unbelievers are moved by acts of kindness. Saul recognized David’s graciousness and also perceived the sovereignty of God.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사울은 다윗의 선대함에 감동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행동에 감동을 받는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선대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했다.

E. *Saul blessed David*: Saul affirmed that David would one day surely be king (24:20; cf. 15:28; 16:12). This confirmed the words of Jonathan (23:17).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다: 사울은 다윗이 언젠가 확실히 왕이 될 것을 단언했다 (24:20; 비교, 15:28; 16:12). 이는 요나단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23:17)

- F. **Saul's plea:** Saul was so confident of David's success that he desired from David an oath. Like Jonathan, Saul asked David to spare his family (20:13-16). He did not ask for political favors, but only that his family line be spared. He pled with David to promise that he would not cut off his descendants after he died (24:21), as it was the customary to kill the descendants of the former king when a new king came to power.

사울의 부탁: 사울은 다윗이 성공하게 될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그는 다윗이 맹세를 해주기를 바랐다. 사울은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가족을 멸하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3-16). 그는 정치적인 호의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의 가계가 멸절되지 않기를 구했다. 새로운 왕이 권세를 잡으면 일반적으로 이전 왕의 후손들을 죽이는 것이 관습이었기에,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자신의 후손을 멸하기 말 것을 약속해달라고 간청했다 (24:21).

- G. **David swore:** David promised Saul this (24:22) as an extension of the oath he had made with Jonathan (20:14-17, 42). David fulfilled this promise by giving Jonathan's son Mephibosheth a position of honor and restoring to him Saul's property and flocks (2 Sam 9:1-13; 19:29; 21:7).

다윗의 맹세: 다윗은 그가 요나단에게 맹세한 것에 이어 (20:14-17, 42), 사울에게 이에 대해 약속해줬다 (24:22).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에게 명예로운 자리와 그에게 사울의 소유와 가축들을 돌려줌으로 이 약속을 지켰다 (삼하 9:1-13; 19:29; 21:7)

- H. **Saul went home:** The king returned to his home in Gibeah, while David went up to the stronghold. The stronghold is either the one at Adullam (22:1) or their previous place at Hachilah (23:19).

사울이 집으로 돌아감: 사울은 기브아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다윗은 자신의 근거지로 올라갔다. 이는 아둘람에 있던 것 (22:1) 혹은 이전의 하길라에 있던 것일 수도 있다 (23:19).

- I. **Leadership lesson:** Forgiveness with showing kindness to enemies is **not** the same as trusting those who have repeatedly chosen sinful decisions.

리더십 강의: 적에게 선대함을 보이며 용서하는 일이, 악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행한 사람을 신뢰하라는 말은 아니다.

- J. **Saul's "sweet rebellion":** Saul's speech (24:17-21) is an example of spiritual sentimentality. He wept (24:16), admitted David's integrity, confessed his sin (24:17), acknowledged God was helping David (24:18), blessed David (24:19), and prophesied his victory (24:20). Many experience a temporary sadness over their sin when it causes negative consequences, yet they do not change.

사울의 "달콤한 반역": 사울의 말은 영적인 감상주의의 예이다 (24:17-21). 그는 울며 (24:16), 다윗의 진실함을 인정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24:17),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심을 인정했으며 (24:18), 다윗을 축복하고 (24:19), 다윗의 승리를 예언했다 (24:20).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때 이에 대한 일시적인 슬픔을 경험하지만 변하지는 않는다.

VI. APPLICATION: ENTRUSTING OURSELVES TO GOD WHEN WE ARE MISTREATED

적용: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드리기

- A. Jesus entrusted Himself to the Father to be vindicated in the right way and in the right timing.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적절한 방법과 때에 옳음을 인정해주시도록 했다.

²³While being reviled, He [Jesus] did not revile in return; while suffering, He uttered no threats, but kept entrusting Himself to Him who judges righteously. (1 Pet. 2:23; NASB)

²³ 욱을 당하시되 [예수님께서서] 맞대어 욱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벧전 2:23)

⁴⁶He sai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Lk. 23:46)

⁴⁶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눅 23:46)

- B. When we commit ourselves into God's hands in times of mistreatment, we make a transaction with God to trust Him to intervene and establish **His will** in our lives in **His way** and in **His timing**. This involves **transferring our personal rights** into His hands, thus transferring responsibility to Him. For example, because all our money has been committed to Him, if someone steals it, they are stealing from Him. He is responsible to intervene to restore our loss in His time and His way.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다른 말로 거래를 하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권리를 그분의 손에 이전해드리며**, 그분께 책임을 넘겨드리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모든 재정이 그분께 위탁드렸기에, 만일 누군가가 이를 훔친다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분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손실을 회복하실 책임이 있으시다.

- C. The Lord will provide for and/or vindicate His people in His time and way. We entrust our future and the mistreatment to God by trusting His leadership to answer in His way and in His timing.

주님은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공급하시고, 옳음을 증명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그분의 방법과 때에 응답해주실 그분의 리더십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미래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위탁해야 한다.

- D. By trusting God to intervene in our conflicts, by refusing to retaliate, and by committing to do good to our enemies, we bring God and His activity into the situation.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등 상황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신뢰하며, 또한 보복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우리의 적에게 선대하기로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초청하는 일이다.

¹⁹Do not avenge yourselves, but rather give place to [God's] wrath; for it is written, “Vengeance is Mine, I will repay,” says the Lord...²⁰if your enemy is hungry, feed him; if he is thirsty, give him a drink...²¹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Rom. 12:19-21)

¹⁹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²⁰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²¹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9-21)

- E. **Vengeance is mine**: Saul continued to seek to kill David, pursuing him with 3,000 soldiers, and David continued to commit his cause into God's hands (26:24). Several years later, the Lord Himself removed Saul—he died in battle by the hand of the Lord (1 Sam. 31; 1 Chr. 10:13-14).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고 3,000 명의 병사와 함께 그를 쫓았으며,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 (26:24).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제거하셨다. 그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었다 (삼상 31 장; 대상 10:13-14).